

교회의 회복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생명의 축복

성경: 시 133-134편

- I.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은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건축되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유일한 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터, 곧 하나라는 터를 예표한다 — 신 12:5, 대하 6:5-6, 스 1:2-3.
- A. 고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였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가 수 세대 동안 지켜졌다 — 신 12:5, 16:16.
- B.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하나의 터는 한 지방에 한 교회라는 유일한 터이다 — 계 1:11.
1. 교회는 우주적이신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땅 위에서 많은 지방들에 존재한다.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것이지만, 실행에 있어서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지방적인 것으로서 한정된 장소에 있다 — 고전 1:2.
 - a.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성하고 보편적이며 우주적이고 영원한 본성과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고전 1:2상.
 - b.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 곧 한정된 한 지방에 머물면서 그 지방을 입지와 터와 관할 지역으로 삼는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의 입지와 터와 관할 지역은 교회가 사무들을 처리하는 행정을 위한 것이며, 이 행정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지방적이고 시간상 일시적인 것이다 — 고전 1:2하.
 2. 우주적인 방면이 없으면 교회는 내용이 없게 되고, 지방적인 방면이 없으면 교회는 어떤 표현이나 실행을 가질 수 없다. 교회를 그 소재하는 지방에 세우는 것에 관한 기록은 신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 행 8:1, 13:1, 14:23, 롬 16:1, 고전 1:2, 고후 8:1, 갈 1:2, 계 1:4, 11.
- II. 시편 133편은 한 성도가 시온에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들에게 명하신 생명의 축복과 관련하여 드린 찬양이다. 형제들이 기름 바름 아래서 연합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 곧 생명의 충만하고 자유로우며 끝없는 흐름이다.
- A. 형제들이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비할 데 없이 좋은 보배로운 관유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한없이 즐거운 혈몬의 이슬에 비유된다 — 시 133:1-3.
1. 아론으로 예표된 한 인격으로서의 교회는 한 새사람이며, 이러한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단체적인 제사장 체계로서 몸과 함께 머리를 포함한다 — 엡 2:15, 벰전 2:5.

2. 시온으로 예표된 장소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다 — 신 12:5-7, 11, 14, 18, 21, 26, 엡 2:21-22, 계 21:3, 22.
- B. 진정한 하나는 퍼져 나가는 관유와 내려오는 이슬로 조성되며, 이러한 관유와 이슬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점진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1. 시편 133편은 에베소서 4장과 일치한다. 우리가 몸 안에 있으면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킬 때, 우리에게는 그 영의 기름 바름이 있게 된다(엡 4:3-6). 복합된 관유인 바르는 기름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곧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의 예표이다(출 30:23-25).
- a. 복합되신 영은 신성한 속성들, 인간 미덕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을 포함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시다 — 빌 1:19.
- b. 우리는 하나 안에 있는데, 이 하나는 바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기름 발라지신, 혹은 ‘페인 트칠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다 — 고후 1:21-22, 요일 2:20, 27.
- c. 교회생활 안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복합된 관유의 모든 성분들이 매일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안에 있게 된다 — 엡 4:3-4.
- d. 하나라는 터는 다만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다.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의 기름 바름이 우리의 하나의 요소이다 — 엡 4:4, 비교 요 4:24.
- 1)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을 떠나 행한다면, 우리는 분열적이 되며 하나를 잃게 된다 — 엡 4:3, 비교 고전 1:10, 2:14-15, 3:1.
- 2)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 영의 하나를 지키게 된다 — 비교 요 4:24, 고전 6:17.
- e. 복합되신 영은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을 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몸 안에, 몸을 위해 계시며, 몸을 건축하는 제사장의 봉사를 위하신다 — 시 133:2, 출 30:26-31, 빌 1:19, 롬 15:16, 뵤전 2:5, 9.
- f. 우리는 지체들의 중보 기도와 교통에 의해 그 영의 공급, 곧 몸의 공급을 받는다.
- 1) 우리가 메마르고 전진할 길이 없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필요하다 — 빌 1:19, 살전 5:25, 욥 42:8-10.
- 2) 우리는 몸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몸의 교통의 유익을 잘 누려야 한다 — 살전 3:8, 고전 10:16하, 요일 1:3.
- 3) 빛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소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 시 73:16-17, 마 5:14, 계 1:20.
2.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은 생명의 은혜(뵤전 3:7),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고후 13:14)께서 내려오시고 신성하게 하시며 물 주시고 적시시는 것을 상징한다.
- a. 성경의 예표에서 혈몬은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하늘들을 상징한다 — 비교 엡 1:3, 마 17:1-2.
- b. 시온의 산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예표한다. 하나의 시온 곧 한 몸인 한 교회가 있지만, 많은 산들 곧 많은 지방 교회들이 있다 — 계 1:11-12.

- c. 은혜는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얻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 요 1:16-17, 고전 15:10, 갈 2:20, 롬 5:2, 17, 21.
- d. 교회생활 안에 머뭇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보존된다 — 행 4:33, 11:23.
- e. 우리는 시온의 산들 위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 20:32, 고후 12:7-9.
- f.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생활이어야 한다 — 고후 12:9, 딤후 4:22.
 - 1) 우리는 주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통해 믿음과 사랑을 갖는다 — 딤후전 1:14.
 - 2)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 엡 2:5-8.
 - 3)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갔고, 이 은혜 안에서 서 있다 — 롬 5:2.
 - 4)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누릴 수 있다 — 살후 2:16.
 - 5)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맞추어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 히 4:16.
 - 6)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고후 9:8.
 - 7) 우리는 하나님의 번성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 뵤전 1:2하, 뵤후 1:2, 계 22:21.
 - 8) 우리는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 약 4:6, 뵤전 5:5.
 - 9)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 — 딤후 4:22, 비교 눅 1:28, 30.
 - 10)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야 한다 — 갈 2:20-21.
 - 11)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충분한 은혜, 곧 그리스도의 장막처럼 드리워지는 능력에 의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 고후 12:9.
 - 12)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재물에 점유되지 않고, 관대하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 고후 8:1-2.
 - 13)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신다 — 뵤전 5:10.
 - 14)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 — 뵤전 4:10, 엡 3:2.
 - 15)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한다 — 엡 4:29-30.
 - 16)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뛰어난 이가 되고 주님을 위해 넘치도록 수고해야 한다 — 고전 15:10.
 - 17)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 롬 5:17, 21.
- g. 교회가 타락한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 계 1:4.
- h. 신약 시대 전체에 걸쳐 믿는 이들에게 분배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확대와 영원한 표현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연결시키시고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완결이다 — 계 22:21.

3.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름 바름과 은혜를 얻는다. 그 영의 기름 바름과 은혜의 공급은 우리가 하나 안에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엡 1:13, 6.
4.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타고난 조성과 기질은 더욱더 감소한다. 우리가 신성한 속성들을 가지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조성과 기질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된다 — 요 17:23, 엡 4:1-3.

III. 시편 133편의 결론이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 중 마지막 노래인 시편 134편은 한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명하고 축복한 것에 관하여 드린 찬양이다.

- A. 이 시편은 가장 높은 이틀, 곧 시온에 있는 이틀이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시 134:1-2, 비교 창 47:10, 48:20, 49:28.
- B. 축복은 시온으로부터, 가장 높은 봉우리로부터, 정상 곧 이기는 이들의 위치에 도달한 이들로 부터 임한다. 모든 시대와 모든 세기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기는 이들로 인하여 교회에게 임했다 — 시 134:3, 비교 계 2:7.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의 두 방면

시편 133편은 너무나 깊이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1절은 “형제들이 하나 안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고도 즐거운가”(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시편 기자가 두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의하라. 그는 이것을 좋고도 즐겁다고 말한다. 두 형용사가 사용된 까닭은, 하나 안에 동거하는 것이 다음 구절에서 아론의 머리 위의 보배로운 관유와 시온산 위의 혈몬의 이슬, 이 두 가지에 비유되기 때문이다. 두 형용사는 ‘하나’의 두 면을 가리킨다. 이 ‘하나’는 좋고도 즐거운 것이다. 그것은 보배로운 관유같이 좋고, 내리는 이슬처럼 즐거운 것이다.

이 두 방면 중 첫 번째는 아론이라는 인격이고, 두 번째는 시온이라는 장소이다. 당신은 교회에 이 두 방면이 있음을 알았는가? 한 면으로 교회는 인격이며, 다른 한 면으로 교회는 장소이다. 인격으로서의 교회는 몸을 가진 머리를 포함한다. 장소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교회가 신부이며, 새사람이며, 전투원임을 본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격으로서의 교회의 방면들이다. 실제로 교회에는 중요한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면은 인격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한 면은 거주하는 장소에 관한 것이다. 관유와 이슬은 교회의 이 두 방면에 관련되는 것이다.

퍼져 나가는 관유와 내리는 이슬

시편 133편 2절에서 <흠정역> 은 관유(ointment, 연고)에 대하여 말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은 기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다. 이 기름은 출애굽기 30장에 설명된 바르는 기름이다. 그 바르는 기름은 올리브기름에 네 가지 향품을 섞어 만든 복합된 관유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막과 그 장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이 관유가 발라졌다. 시편 133편에 의하면 이 복합된 관유는 한 사람, 곧 아론 위에 있었다. 우리는 이와 대조적으로 신선하게 하고 물 주고 적서 주는 이슬이 장소, 곧 시온의 산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바르는 기름이나 흠뻑 적시는 이슬은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이슬은 비처럼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내

려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유도 실질적으로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염을 적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옷깃에 내려온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지면에 씨를 뿌리듯이 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침대 위에 이불을 펴듯이 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관유는 그의 수염 위에 펴져, 수염 위에서 빨리 흘러내리지 않고 서서히 완만하게 흘러 퍼져 나간다.

똑같은 원리로 이슬도 시온산 위에 내려왔다. ‘축복의 소나기’라는 찬송이 있다(영어 찬송가 260장). 이러한 영적인 소나기는 본질적으로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다. 나는 축복의 소나기보다는 흘러 퍼지는 관유와 내리는 이슬에 대하여 더 감사한다. 소나기는 하나와 관계없다. 참된 하나는 흘러 퍼지는 관유와 내리는 이슬로 조성된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기름 발라짐

우리가 강조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참된 하나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이 하나를 실행하는 길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없다. 이러한 연합을 실행하는 길은 시편 133편에 있다. 2절에 있는 관유는 오늘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되신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다. 출애굽기 30장에 의하면 관유는 올리브기름 한 헌에 네 가지 향품을 섞어 만든 복합된 것이다. 이 복합물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예표하며, 이 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신다. 우리는 이 복합되신 영 안에 신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분의 죽음의 효능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갖는다. 바꾸어 말해서 이 복합되신 영은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포함하시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이시다. 교회생활에서 이 복합되신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름 바르신다.

관유는 페인트에 비유될 수 있으며 기름 바름은 페인트칠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당신의 의자에 페인트칠을 할 때 당신은 한 겹의 페인트를 칠한 후에 다시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한다. 이 복합되신 영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페인트칠하시는 것’이며 이 ‘페인트’는 바로 삼일 하나님이다. 이 페인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갖는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생활을 갖는다. 이 모든 관유의 성분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복합된 관유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로 페인트칠해진다. 합당한 교회생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인 하나 안에 있는 생활이다. 이 하나를 지킬 때 우리는 그 관유로 페인트칠해진다. 이렇게 페인트칠해지면 칠해질수록 우리의 타고난 조성품과 성품과 기질은 더욱 제거된다. 남은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우리의 높여진 인성의 연합이다. 이것이 곧 하나이다.

이러한 하나 안에서는 분열은 물론 의견을 달리하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하나 안에서는 우리의 의견까지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 안으로 이끄는 신성한 ‘페인트칠’을 더 많이 체험해야 하지만, 교회생활 안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교파나 독립 단체들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난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요소와 분열시키는 요인들이 정복된다. 이것이 ‘하나’의 효과이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페인트’가 우리 존재에 적용될수록 분열은 더욱 어려워진다. 하늘에 속한 ‘페인트’를 바름으로 우리는 타고난 관념에 의한 피상적인 하나가 아닌 참된 하나로 인도된다.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 페인트칠해지신 하나 안에 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관유, 곧 신성한 ‘페인트’는 흘러내리지 않고 퍼져 나간다. 나는 나의 집이 물같이 벽을 흘러 내려가는 페인트가 아닌 짙은 페인트로 칠해지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관유가 우

리에게 발라질 때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흘러 내려가지 않는다. 관유가 흘러 내려간다는 것은 오순절적인 체험이나 혹은 은사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체험과 같다. 이러한 종류의 체험들은 빨리 지나간다. 그러나 교회생활 안에서의 영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완만하게 온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오면, 머물러 있게 된다. 페인트가 한번 우리에게 발라지면 그것은 발라진 자리에 머문다. 우리가 바르는 기름으로 칠해진 후에 칠해진 기름은 영원히 남는다. 그 무엇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

기름 바름은 우리의 감정 안에서 그리 많은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빨리 와서 빨리 가는 체험들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생활 안에서의 정상적인 체험이 아니다. 교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관유가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체험한다. 예를 들면 교회의 기도 집회에서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한 겹 두 겹 페인트가 칠해진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관유는 많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할 만한 일인가! 매일매일 교회생활 안에서 관유의 모든 거룩한 성분들이 우리 속으로 일해 넣어지고 있다. 우리의 내적 존재에 이 성분들을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절로 하나 안에 있게 된다. 우리는 분열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것까지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지! 나누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거슬러 강한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페인트’의 모든 성분들로 ‘페인트칠’해져 왔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이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 적용됨

‘하나’라는 터는 다만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되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음으로써 형성된 하나 안에 있지 않다. 그러한 종류의 하나 안에서는 더하기도 쉽고 빼기도 쉽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 존재에 적용시킴으로써 이루어진 하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나가기가 극히 어렵다. 이 ‘하나’는 오늘날 기독교 안의 하나와는 전혀 다르다. 기독교의 하나에는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시킨 것과 관련된다.

‘몸’을 가진 머리를 위하여

관유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다. ‘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관유를 체험할 수 없다. 시편 133편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그 관유는 머리 위에 있다. 후에 그것은 수염으로 퍼져 나가서 옷깃까지 내려간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일 때 관유를 체험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은 그의 가정에서 혼자 주님을 접촉할 수 있다고 항의할지 모른다. 물론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교회와 하나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교회와 하나라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혼자 주님을 합당하게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회와 분리되어 있다면 주님과 접촉은 아주 달라질 것이다. 그것은 기름 바름이 개인적인 지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을 위한 것이며 ‘몸’을 가진 머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유로 페인트칠해지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요소들을 가진 기름 바름을 저절로 누리게 된다. 관유를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하나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은혜 -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시편 133편 3절에 의하면 ‘하나’는 또한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바르는 기름은 인격인 아론 위에 있지만 이슬은 장소인 시온 위에 있다. 이슬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한다(벧전 3:7). 생명의 은

혜는 생명의 공급이다. 교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기름 바름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공급인 은혜를 받는다. 우리에게 관유가 발라질 때 우리는 또한 은혜를 받는다.

‘형제의 집’에 함께 사는 두 형제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도 그들은 함께 교회생활을 하므로 은혜를 받고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다. 자연히 그들은 서로서로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진실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은혜인 이슬의 체험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했다. 바울은 그를 괴롭히는 ‘가시’를 없애 달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 주님은 그분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에게서 가시를 없애기보다 바울에게 그분의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기 원하셨음을 가리킨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교회를 축복한다. 이 구절은 은혜가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임을 가리킨다. 관유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페인트칠’되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슬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교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름 바름과 은혜를 갖는다.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으로 페인트칠해지며,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다. 이 기름 바름과 공급이 우리를 하나 안에 살 수 있게 한다. 시편 133편에 있는 이 하나는 바르는 기름과 적셔 주는 이슬과 같다. 우리는 바르는 기름과 적셔 주는 이슬 아래서, 하나라는데 위에서 생명의 축복을 체험한다.

이슬 - 생명의 은혜

성경의 예표에서 혈문은 하늘들, 곧 우주의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하며, 이슬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한다(벧전 3:7). 신약이 없다면 이슬이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은혜에 관한 말로 시작하며 은혜에 관한 언급으로 끝을 맺는다.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파에 있었을 때, 은혜가 과분한 호의를 의미한다고 들었다. 은혜에 대한 이런 이해에 의하면 은혜를 받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과분한 호의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연말에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들에게 주신 좋은 직장, 큰 집, 최신형 자동차 등 모든 축복을 세어 본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바울 같으면 직장이나,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단지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다.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밝히고 있듯이 은혜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생명 공급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다.

엄밀히 말해서 은혜는 신약의 용어이다. 구약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은총(恩寵)의 의미를 갖는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을 때 은혜도 왔다. 이것은 은혜가 육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이전에는 은혜가 오지 않았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통하여 왔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구절들이 은혜에 관해 말한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부활의 큰 능력이 큰 은혜였음을 가리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곧 은혜이시다. 그러한 은혜는 좋은 집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자동차가 아니다. 은혜는 믿는 이들이 체험하고 영접하고 누리고 얻은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때 그가 물질적인 축복을 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믿는 이들이 그들의 누림을 위해 생명 공급이 되신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비교할 수 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는데, 이 은혜는 분명히 바울의 체험 가운데 그에게 생명 능력과 생명 공급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서 있는 이 은혜’란 분명히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은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설 수 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은혜가 생명이고 생명이 은혜임을 함축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생명의 은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받을 유업이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 모든 구절들에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생명 능력과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임을 가리킨다.

이것에 대해 밝아진다면 우리는 시편 133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슬을 더 많이 감상할 수 있다. 은혜인 이슬이 우리의 누림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물 주고 우리를 신성하게 하고 적서 주는 이슬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믿는 이들과 하나 될 수 없다. 우리가 이 이슬을 체험하는 것은 시온산들 위에서의이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은혜를 예표하는 이슬을 누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시온산들의 봉우리 중 하나 위에 있을 것이다. *(참하나의 입장; 120-128, 140-142쪽)*